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투자유치 지름길 뚫렸다

산업부, 빛그린산단·에너지밸리·첨단3지구 등 4개 지구 지정
 조세감면·규제완화 등 경영환경 개선... 투자유치 전환점 마련
 생산 10조3641억·부가가치 3조2440억·고용 5만7496명 효과

광주광역시와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경제자유구역이 3일 최종 지정돼 광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으로서 광주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에너지 산단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광주경제자유구역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4개 지구(▲미래형자동차산단지구-빛그린국가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에너지밸리일반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도점국가산단 ▲AI 융복합지구-첨단3지구) 4.371km²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AI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 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 관세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광주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상생과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광주형 일자리'와 'AI'를 기반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산업이라는 산업혁신 콘텐트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틀에 담아 기업하기 좋고 풍요로운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각 지구별 주요 개발계획으로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및 전장분야 기술 고도화를 이뤘고,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등을 설립해 친환경자동차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I는 에너지 ICT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연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공식지정 관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그리드 분야를 특화해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기술고도화와 함께 에너지융복합단지과 경제자유구역의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 기업유치로 에너지산업의 양적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광주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구·정원 승인을 받은 후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국내외 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중심으로 4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을 집적화 및 유기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주 투자유치의 세로

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계기로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6279억원을 투자유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10조364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2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7496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규진 기자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 추진
 전남도, 총 1천 514억원 투입

전라남도는 천사대교와 자라대교 개통에 이어 신안 하의도 평화의 섬 연결을 위해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장산-자라간 연도교'는 해상교량 1.63km와 접속도로 1.24km 등 총 길이 2.87km의 2차로로 설치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천 514억 원(공사비 1천 321억, 감리비 등 193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 추진은 지난해 9월 신안군이 하의도 연결을 위한 미개통 해상교량 4개소 3.84km 중 전라남도가 관리한 장산-자라간 해상교량 1.63km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균비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가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 하의도를 연결할 해상교량 4개소 중 장산-자라간 지방도 사업을 도?시균비로 우선 시행하고, 막금-장산 등 나머지 해상교량 3개소 2.21km는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장산-자라간은 조달청에서 6월 중 입찰공고 예정이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장산-자라간 연도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식수문제, 전기공급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교량 계획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신속 착공을 위해 지난해 9월 단기임차방식심의 완료 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동시에 추진한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또 기본 설계기간도 5개월에서 3개월로 2개월 단축되도록 국토교통부 승인을 마쳤다.

이밖에도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에 제5차 국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신안 추포-비금(10.4km, 3,433억 원) 구간이 일괄 예산 대상지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이 확정될 전망이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민일보 6월 19일
창사 20주년
 코로나19 관계로 행사는 추후 공지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활동' 본격 착수

의과대학 유치 제1차 TF팀 회의 개최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오후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송상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회

의는 도내 의과대학 추진전략과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자리로, 목포대·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장과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조성과 유치활동 지원,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활동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TF팀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해 의과대학 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TF팀은 의과대학 유치 자문활

동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국회 정책포럼 추진, 범도민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홍보와 유치 범조성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라남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며 "올해 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전남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지역 역

량을 끌어 모아 중앙부처를 설득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그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에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10여 차례 이상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목포대·순천대와 목포시·순천시,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